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30장 다같이

1.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대로 힘써 일하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16:1-13 인도자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 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 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설 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성탄절”

(누가복음 1:26-38)

성경의 첫 번째 성탄은 평범한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 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점을 갖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엘리 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부의 삶이 그렇게 유복해 보이지도 여유 있는 삶도 아닌, 세칭 복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 에서 자신의 순서대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 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지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 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에게 인도할 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하 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온통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이 가족의 모든 이야기는 온통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개인적 관심사나 형편들은 모두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당시 풍습으로 보아 지금 중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그녀는 당시 일반적인 처녀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수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랬던 것 같이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그녀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누군가 인간의 상응하는 신앙을 이끌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함께할 정혼자 요셉의 삶과 자신의 삶을 함께 엮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은 당대 보통 사람들의 운명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미래가 매우 불안정한 약소 후진국의 시골 아낙네의 운명이라고 낙심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천사의 고지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신의 삶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니!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이 과연 당시 평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일 텐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고지의 부름부터 마리아는 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29절)에서 ‘생각한다’는 동사는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때, 마리아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상황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처녀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래적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거절하는 마리아에게 그는 오히려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을 확신시킴과 동시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와 은총의 말씀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선포가 마리아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